

## 유럽 증시, 중국 GDP성장률 개선에 힘입어 반발 매수 유입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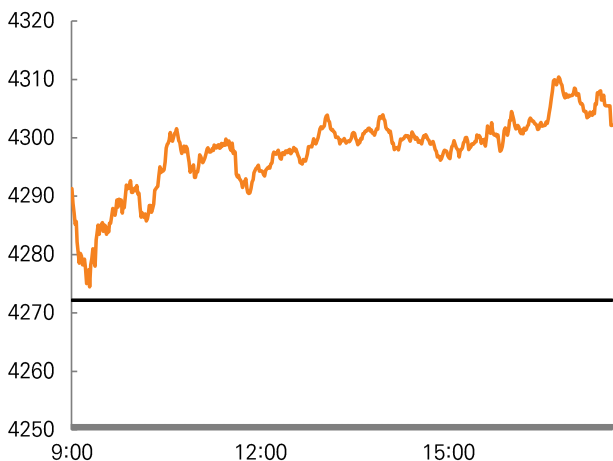
###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중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데 힘입어 상승. 특히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MLF)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정책 발표가 전반적인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미국과 중국 소매판매 쇼크로 소비재 업종이 부진했으나, IT, 헬스케어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차별화도 특징인 가운데 지난 금요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독일 +0.32%, 영국 +0.91%, 프랑스 +0.82%, 유로스톡스50 +0.70%)

### 한국 증시 전망

-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2.2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9%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가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개선과 MLF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IPO를 앞두고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 증시는 일부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과거 삼성생명 상장 당시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생명을 순매수 했으나,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 매도를 했었기 때문. 그러나, 당시에 단기적인 수급 불안을 뒤로하고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군의 경우 순매수가 이어지며 지수를 견인했던 점에 주목.
- 이를 감안 LG에너지솔루션 IPO로 인한 수급 불안에 따른 KOSPI 조정은 실적 호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하향 조정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최근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시총 상위 종목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임

유로스톡스 5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890.10	-1.09	상해종합	3,541.67	+0.58
KOSDAQ	957.90	-1.39	홍콩항셱	24,218.03	-0.68
DOW	35,911.81	휴장	베트남	1,452.84	-2.89
NASDAQ	14,893.75	휴장	유로스톡스 50	4,302.14	+0.70
S&P 500	4,662.85	휴장	영국	7,611.23	+0.91
캐나다	21,535.71	+0.83	독일	15,933.72	+0.32
일본	28,333.52	+0.74	프랑스	7,201.64	+0.8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중국 경제지표

중국 12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yoy +3.9%)나 예상(yoy +3.7%)을 하회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침. 그러나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yoy +3.8%)나 예상(yoy +3.6%)을 크게 상회해 전년 대비 4.3% 증가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식품(yoy +11.3%), 음료수(yoy +12.6%)와 일용품(yoy +18.8%) 등의 항목이 급증했으나, 의류, 신발(yoy -2.3%), 가전제품(yoy -6.0%), 자동차(yoy -7.4%) 등이 부진해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산업생산은 41개 주요 업종 중 30개가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농업 및 식품가공이 5.7%, 전기기계가 5.8%, 컴퓨터 및 전자 장비가 12.0%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생산이 2.8% 감소. 제품별로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52.3만대로 113.5% 급증했으나, 철강이 5.2%, 시멘트가 11.1% 감소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양호한 점이 특징

한편, 중국 4분기 GDP 성장률은 4.0%로 예상(yoy +3.6%)을 상회하는 등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으나, 경기 둔화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코로나가 확산되자 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 물론 산업생산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춘절과 올림픽 기간이 이어지며 2월까지 봉쇄가 이어질 수 있어 이 또한 낙관적이지 않음

중국 통계국은 이러한 지표 결과에 대해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기대 목표가 충분히 실현 되었다고 주장했고, 혁신 모멘텀이 효과적으로 강화돼 고부가가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 했으나,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 부양정책 기대 심리는 높음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실적 호전 기대 높은 종목 중심 반발 매수 기대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2.2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9%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발언과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 지표 충격에 따른 매물 출회로 하락. 더불어 LG에너지솔루션 IPO 공모에 따른 수급 불안과 함께 셀트리온과 카카오페이 등 개별 종목 이슈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다만,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교차 매수 기대로 나타난 2차 전지 업종의 강세가 특징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가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개선과 MLF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 발표 등에 힘입어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특히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아토스 +6.35%)과 헬스케어(글락소스미스클라인 +4.07%)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점이 특징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소매판매 쇼크로 소비재(헨켈 -2.84%, 유니레버 -6.97%)가 부진을 보이는 등 차별화가 진행된 점은 주목.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의 IPO를 앞두고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 증시는 일부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과거 삼성생명 상장 당시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생명을 순매수 했으나,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 매도를 했었기 때문. 그러나, 당시에도 단기적인 수급 불안을 뒤로하고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군의 경우 순매수가 이어지며 지수를 견인했던 점에 주목. 이를 감안 LG에너지솔루션 IPO로 인한 수급 불안에 따른 KOSPI 조정은 실적 호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하향 조정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최근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시총 상위 종목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임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중국 소매판매 부진 Vs. 산업생산 개선

중국 12월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yoy +3.9%)나 예상(yoy +3.7%)을 하회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침. 그러나 중국 12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yoy +3.8%)나 예상(yoy +3.6%)을 크게 상회한 전년 대비 4.3% 증가. 중국 12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달 발표(yoy +5.2%)를 하회한 전년 대비 4.9% 증가했으나, 예상(yoy +4.8%)을 소폭 상회

중국 4분기 GDP 성장률은 4.0%로 예상(yoy +3.6%)을 상회



## FICC,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산

국제유가는 CME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브렌트유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타이트한 공급에 기대 상승. 더 나아가 중국 산업생산 개선 특히 정제 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 이에 힘입어 브렌트유가 강세를 보였고 WTI도 시간 외로 상승세를 이어감

달러화는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파운드화는 영국 존슨 총리의 리더십 위기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약세. 더불어 다음주 초에 코로나 및 경제 정책에 대한 플랜 B가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도 약세 요인 중 하나. 중국 성장을 개선에 기대 캐나다 달러, 호주달러는 물론 브라질 헤알 등 상품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시간외로 상승. 중국 성장을 개선 및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선물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 점,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 등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기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

금은 시간 외로 소폭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성장을 개선 등에 기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곡물시장은 휴장.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5% 상승 했으나 철근은 0.58%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3.82	휴장	+6.24	Dollar Index	95.252	+0.09	-0.77
브렌트유	86.48	+0.49	+6.94	EUR/USD	1.1406	-0.04	+0.71
천연가스	4.25	휴장	+4.22	USD/JPY	114.59	+0.35	-0.53
금	1,816.50	휴장	+1.06	GBP/USD	1.3646	-0.21	+0.51
은	22.92	휴장	+2.27	USD/CHF	0.9142	+0.02	-1.41
알루미늄	2,997.00	+0.69	+2.23	AUD/USD	0.7212	+0.06	+0.59
전기동	9,731.00	+0.12	+1.75	USD/CAD	1.2518	-0.27	-1.27
아연	3,508.00	-0.37	+0.89	RUB/USD	0.0131	+0.38	-1.50
옥수수	596.25	휴장	-1.73	USD/BRL	5.5248	-0.06	-2.56
밀	741.50	휴장	-2.24	USD/CNH	6.3509	-0.11	-0.47
대두	1,369.75	휴장	-2.87	USD/KRW	1,192.70	+0.45	-0.53
커피	239.65	휴장	+0.50	USD/KRW NDF1M	1,192.20	+0.10	-0.5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784	휴장	+2.38	스페인	0.656	+2.00	+1.20
한국	2.565	+10.10	+8.80	포르투갈	0.570	+2.00	-0.80
일본	0.148	+0.50	+0.80	그리스	1.584	+7.00	+3.90
독일	-0.025	+2.10	+0.90	이탈리아	1.292	+2.10	+0.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